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 제조업부문 감소세 지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년 5월 서울지역의 산업생산지수는 93.4(NSA, 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11.0% 감소 ○ 서울 대형종합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7.2%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대형종합소매점 판매액은 1조4172억으로 전년동월대비 7.2% 증가함 ○ 서울의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0.5%p 상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는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4.6% 상승함 - 생활물가는 전월대비 소폭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하락
고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전년동월대비 0.6%p 감소한 62.5%로 남자는 74.1%, 여자는 51.5%임 ○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서울의 취업자 수는 전년동월대비 10천명(-0.2%) 감소한 4,961천명이며, 전월대비로는 8천명(-0.2%) 감소함 ○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소폭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서울의 실업률은 전년동월대비 0.2%p 하락한 3.8%로, 전국과의 실업률 격차는 0.7%p로 보합
부동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기준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서울의 건설수주액은 2조 7,315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13.9% 증가 - 공공부문은 신규주택 공사 및 철도공사 부문의 발주 증가로 4140.7%의 매우 큰 증가폭을 보인데 비해 민간부문은 재건축 및 재개발주택 공사부문의 발주 증가로 74.9% 증가를 보임 ○ 6월 기준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상승폭은 다소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은 전월대비 0.7% 상승한 가운데 강북지역은 1.0% 상승, 강남지역은 0.4% 상승으로 전월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완화됨 ○ 6월 기준 서울의 주택전세가격 상승세 완화로 인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0.3% 상승으로 전반적으로 전월에 비해 안정된 모습을 보였으나, 강북지역의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 강남지역은 상승폭이 축소되었음
금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소폭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455조 8,126억원 규모로 나타났으며, 전월대비 0.9% 상승함 ○ 5월 기준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487개로 전월대비 200개 법인이 감소함 ○ 6월 기준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63개로 전월보다 12개 감소 ○ 서울시 수입은 수출 보다 크게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월 서울의 수출은 109.0%의 증가율을 보인 정밀화학원료, 40.4%의 증가율을 보인 반도체 등에 전년동월 대비 14.2% 증가 - 6월 서울의 수입은 수출보다 높은 23.8%의 증가율을 보임. LPG수입은 전년동월에 비해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선재봉강 및 철근(170.1%), 반도체(91.3%), 철강관(63.2%) 등의 증가폭이 매우 컸음

| 생 · 산 |

5월 경기는 제조업부문 전년동월대비 감소

- 전반적으로 수출 호조 및 서비스업 부진 등 증가세 둔화
 - 5월 중 산업생산은 증가세가 둔화되는 모습으로, 광공업 생산은 수출 호조에도 불구하고 내수 부진 등으로 지난달보다 소폭 감소, 전년동월대비 증가율도 둔화, 재고는 지난달보다 확대됨
 - 광공업 생산은 영상음향통신, 기계장비, 자동차 등의 부진으로 지난달에 비해 0.6% 감소하였음
 - 전년동월대비로는 반도체 및 부품, 영상음향통신 등의 호조로 8.3%p 증가, 조업일수 조정지수로는 11.6% 증가하였음
 - 서비스업 생산은 통신업, 오락·문화운동관련 서비스업, 도소매업, 운수업 등에서 부진하여 지난달에 비해 0.1% 감소
 - 전년동월대비로는 금융 및 보험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부동산 및 임대업 등을 중심으로 4.6% 증가
- 서울 제조업부문 전년동월대비 감소
 - 2008년 5월 서울지역의 산업생산지수는 93.4(NSA, 2005=100)로 전년동월대비 11.0% 감소
 - 업종별로 보면 의복 및 모피 등에서 증가한 반면, 기타제품, 의약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금속가공, 기계장비 등에서 감소
-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중공업부문은 소폭 감소, 경공업부문 소폭 감소
 - 중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21.1% 감소하였으나, 지난 달 보다 감소세가 완화됨
 - 경공업부문은 전년동월대비 4.8% 감소함
 - 세부 업종별로 보면 의복 및 모피 등에서 증가한 반면, 기계장비, 기타제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금속가공 등에서 감소

〈표〉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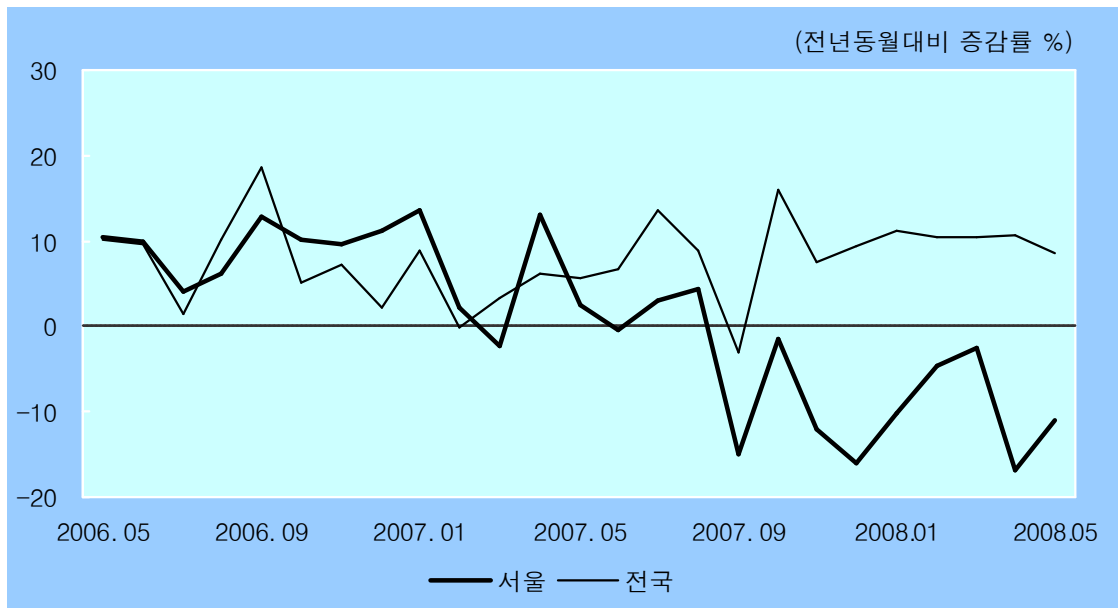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5월	1월	2월	3월	4월p	5월p	
전년동월비	전국	5.7 (1.2)	11.2 (2.1)	10.3 (-0.2)	10.3 (1.1)	10.7 (1.0)	8.6 (-0.6)
	서울 (제조업)	2.5 (-9.8)	-10.1 (-3.3)	-4.7 (-11.2)	-2.6 (12.4)	-16.7 (-6.6)	-11.0 (-3.6)
	중공업	0.2 (-22.1)	-25.7 (-11.7)	-17.8 (-6.1)	-15.5 (2.8)	-39.4 (-13.6)	-21.1 (1.3)
	경공업	3.9 (-0.2)	1.8 (2.2)	5.5 (-14.2)	6.2 (18.5)	1.1 (-2.9)	-4.8 (-6.0)

주: ()안은 전월비임,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치를 나타냄

전월비는 계절조정지수의 증감률임(2005=100), 서울의 전월비는 원지수의 증감률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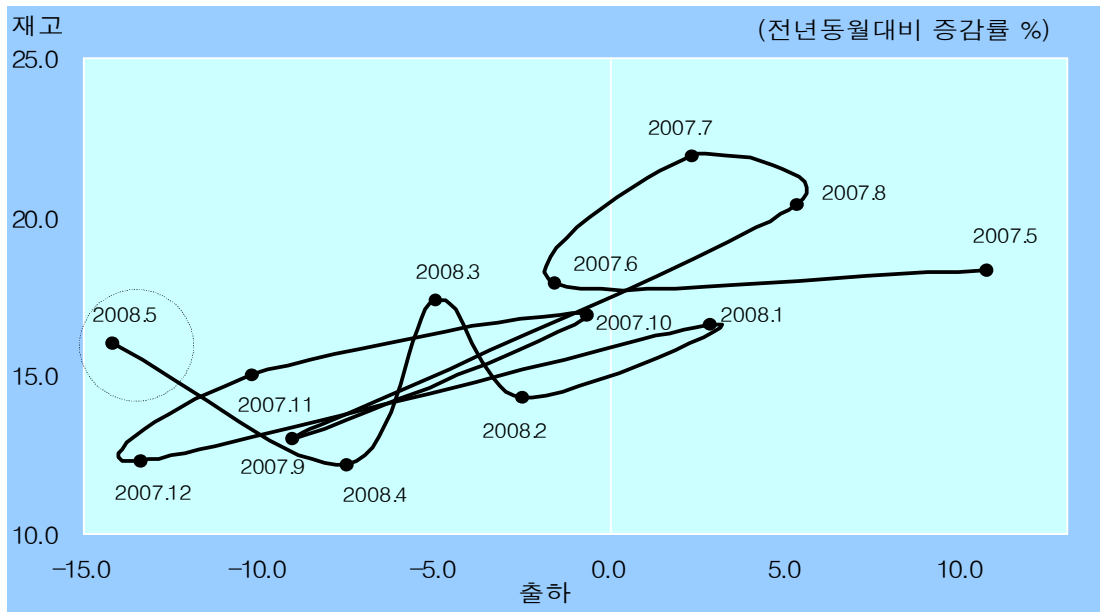


〈그림〉 서울과 전국의 산업생산 증감률 추이

| 출하 · 재고 순환 |

5월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조정 단계

- 서울지역의 생산자제품 출하지수는 154.7으로 전년동월대비 13.1% 감소
 - 업종별로 보면 기계장비 등에서 감소한 반면, 의복 및 모피, 식료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섬유제품 등에서 증가
 - 출하는 전년동월비 감소하고 재고도 전년동월비 감소하여 재고조정 단계로 해석할 수 있음(<Box> 참조)



<그림> 서울의 출하·재고 증감률 추이

<Box> 출하·재고 순환 상관표

출하↓	출하↑	출하↑	출하↓
재고↓	재고↓	재고↑	재고↑
재고조정	재고감소	의도된 재고증가	재고누증

■ 서울 제조업부문 재고율 감소

- 5월 전국 제조업부문 재고율은 103.2%로 전월대비 3.8%p 감소하였고, 서울 제조업 부문의 재고율은 161.9%로 전월대비 1.9%p 감소함
- 업종별로 보면 기계장비 등에서 감소한 반면 의복 및 모피, 식료품,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 그리고 섬유제품 등에서 증가
- 서울의 산업부문별 재고율은 중공업부문이 전월대비 -21.7%p 감소한 158.2%를 나타냈고, 경공업부문은 12.5%p 증가한 161.3%로 나타남

〈표〉 서울과 전국의 제조업 재고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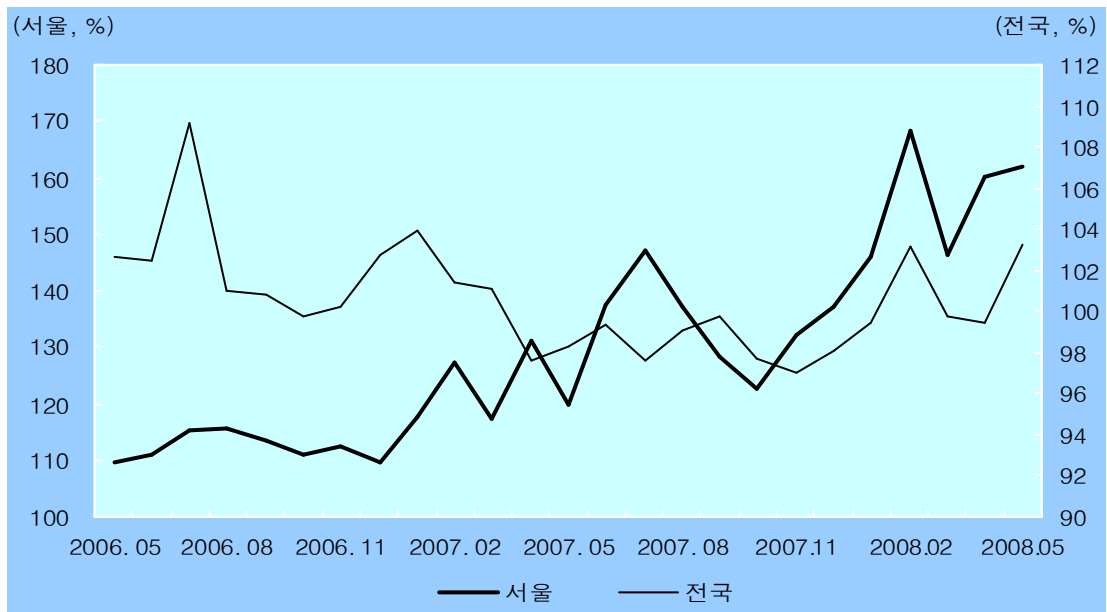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전월대비 증감	
	5월	1월	2월	3월p	4월p	5월p		
재고율	전국	98.0	99.4	103.1	99.7	99.4	103.2	3.8
	서울	119.8	146.0	168.4	146.3	160.0	161.9	1.9
	중공업	112.3	149.5	170.2	150.2	179.9	158.2	-21.7
	경공업	126.6	143.3	166.7	142.6	148.8	161.3	12.5

주: 제조업에 대한 재고율 (계절조정재고지수 ÷ 계절조정출하지수) × 100

서울의 재고율 (재고 원지수 ÷ 출하 원지수) × 100, 통계표의 부호p는 잠정을 나타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재고율 추이

| 소 · 비 |

5월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 대형소매점 전년동월대비 판매액 증가

- 5월 소매판매액은 전년동월대비로는 10.2% 증가함
- 전년동월대비로는 차량용연료, 의약품·의료용품 등 비내구재의 비중이 커진 반면 승용차, 가전제품·컴퓨터·통신기기등의 내구재와 신발, 경기용품 등 준내구재는 다소 축소되었음

■ 서울 대형소매점 판매액 증가

- 5월 대형종합소매점 판매액은 1조4172억으로 전년동월대비 7.2% 증가함
- 결혼 성수기와 어버이날 등과 같은 기념일의 집중으로 혼수용품 및 선물용품(귀금속·주방용품·화장품·가구·식료품·의류잡화) 판매 호조로 8.8% 증가
- 어버이날 등과 같은 기념일의 집중으로 선물용품(귀금속류·주방용품·화장품류·식료품·의류잡화) 판매호조 및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으로 인해 5.1%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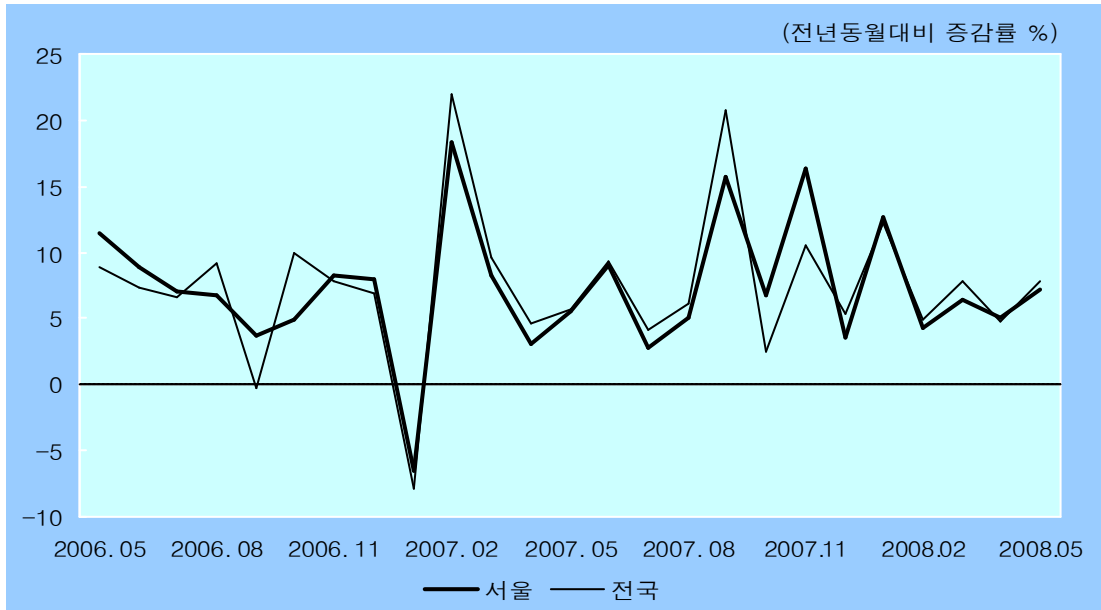
〈표〉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경상금액, 단위: 십억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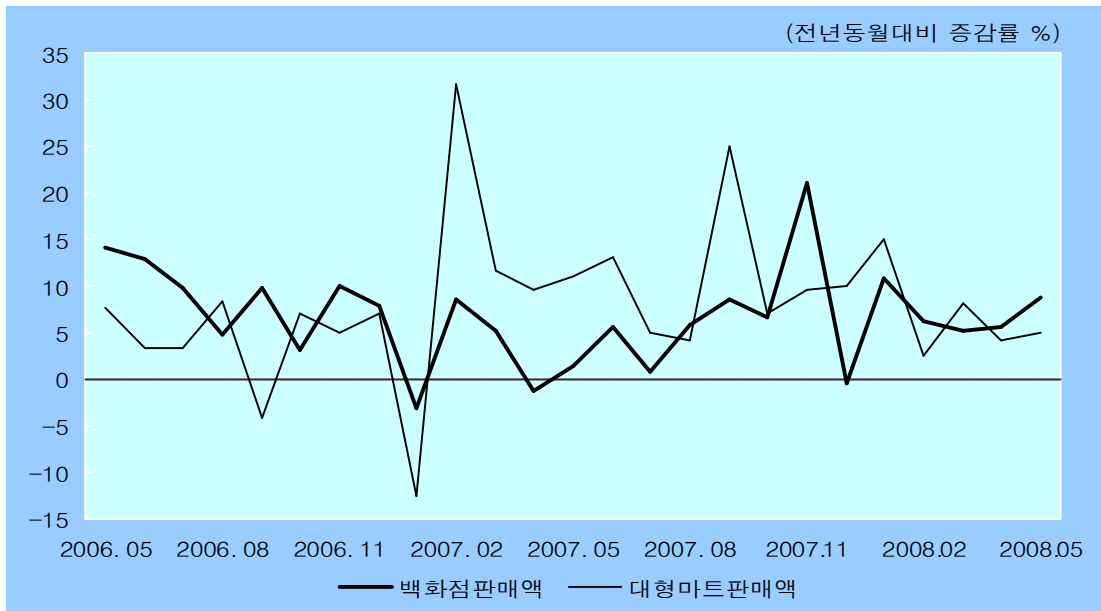
구 분		2007년	2008년				
		5	1월	2월	3월p	4월p	5월p
판매액	전국	3,918.8 (5.6)	4,126.9 (12.2)	4,134.3 (4.9)	4,190.4 (7.8)	4,017.2 (4.7)	4,224.0 (7.8)
	서울	1,322.5 (5.5)	1,411.3 (12.6)	1,326.3 (4.3)	1,398.2 (6.5)	1,376.7 (5.0)	1,417.2 (7.2)
	백화점	733.8 (1.5)	803.3 (10.8)	701.7 (6.2)	777.7 (5.2)	793.1 (5.6)	798.6 (8.8)
	대형마트 (할인점)	588.6 (11.0)	608.0 (15.0)	624.6 (2.4)	620.4 (8.2)	583.5 (4.1)	618.5 (5.1)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대형소매점은 매장면적이 3,000m2 이상인 소매점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에 따라 할인점이 대형마트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그림>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 추이

| 물 · 가 |

6월 서울의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상승

- **전국의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소폭 상승**
 - 5월 소비자물가는 전월대비 0.6%, 전년동월대비 5.5%, 전년동기대비 4.3% 각각 상승
 - 전월에 비하여 식료품비주류음료, 교양오락은 하락하였으나, 주거 및 수도·광열, 가구집기가사용품, 교통, 외식·숙박 등이 상승하였음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1.0%, 전년동월대비 7.0% 각각 상승

- **서울의 소비자 물가 전월대비 소폭 상승**
 - 5월 서울시 소비자물가지수는 109.4(2005=100)로 전월대비 0.5%, 전년동월대비 4.6% 각각 상승함
 - 주요도시의 전월대비 소비자물가는 서울은 전도시 평균(0.6%) 보다 낮게 상승함
 - 인천, 경기도는 전도시 평균과 같으며 그 외 전도시는 평균보다 높게 상승하였음
 - 전월에 비하여 식료품비주류음료, 교양오락 부문은 하락하였으나, 교통·외식·숙박, 가구집기가사용품 등이 상승하여 전체적으로 전월대비 0.5% 상승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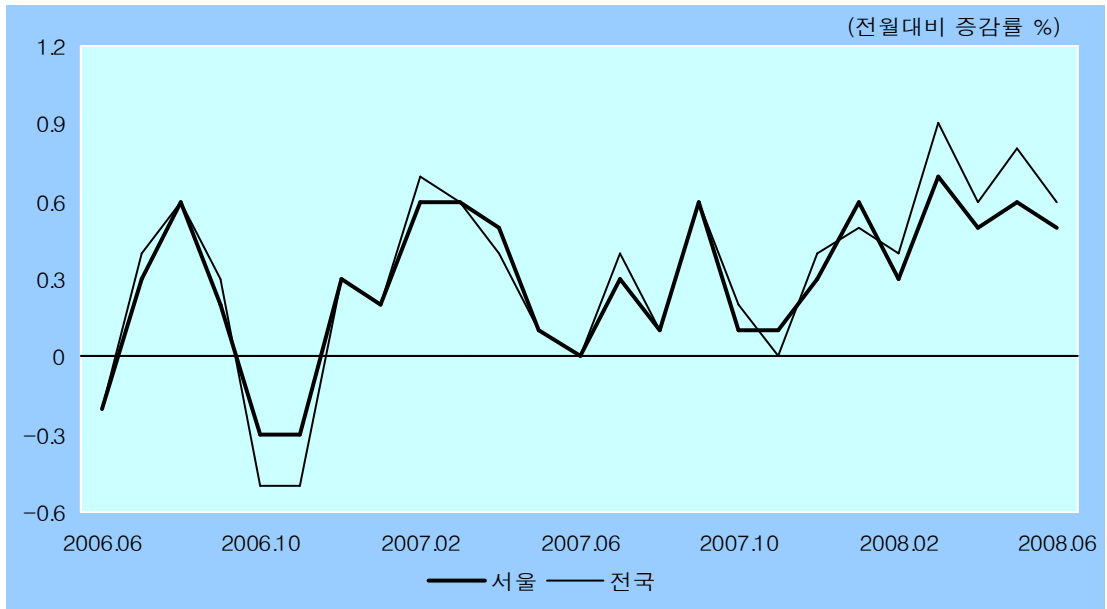
- **생활물가는 전월대비 소폭 상승,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하락**
 - 소비자들이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생활품을 중심으로 한 생활물가지수는 전월 대비 0.6%(전국:1.0%), 전년동월대비 5.5%(전국:7.0) 각각 상승함
 - 생선류, 채소류, 과일류를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5.4%(전국:-5.0%), 전년 동월대비 7.2%(전국: -5.6%) 각각 하락함

〈표〉 소비자 물가 동향

(2005=100.0,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6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월비	전국	0.1 (2.5)	0.5 (3.9)	0.4 (3.6)	0.9 (3.9)	0.6 (4.1)	0.8 (4.9)	0.6 (5.5)	
	서울	0.0 (2.8)	0.6 (3.8)	0.3 (3.5)	0.7 (3.6)	0.5 (3.5)	0.6 (4.1)	0.5 (4.6)	
	상품 성질별	상품	-0.2 (1.8)	0.8 (4.8)	0.1 (3.8)	0.2 (3.9)	0.8 (4.3)	1.5 (5.9)	0.9 (7.1)
		서비스	0.0 (3.1)	0.4 (3.2)	0.4 (3.2)	0.9 (3.2)	0.3 (3.1)	0.2 (3.1)	0.3 (3.4)
	생활물가	-0.1 (3.5)	0.4 (4.9)	0.3 (4.4)	0.9 (4.3)	0.5 (4.1)	0.7 (4.7)	0.6 (5.5)	
	신선식품	-3.2 (7.4)	-1.5 (4.3)	-0.2 (-2.5)	-4.4 (-5.1)	-1.0 (-6.7)	-1.0 (-5.1)	-5.4 (-7.2)	

주: ()안은 전년동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소비자물가 추이(2005=100)

| 경 · 제 · 활 · 동 · 인 · 구 |

6월 서울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감소

- **전국의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
 - 6월 15세 이상 인구는 39,58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403명(1.0%) 증가하였고, 경제활동참가율은 62.5%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4,344천명으로 65천명(0.5%)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10,383천명으로 70천명(0.7%) 증가하였음
- **서울의 경제활동인구 및 경제활동참가율 전년동월대비 감소**
 - 6월중 서울의 15세 이상 인구는 8,25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7천명(0.9%), 전월대비 4천명(0.0%)이 각각 증가하였음
 - 경제활동인구는 5,15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천명(0.0%)이 감소하였고, 전월대비 3천명(-0.1%)이 감소하였음
 - 경제활동참가율은 62.5%로 전년동월대비 0.6%p 감소하였고, 전월대비는 0.1% 감소하였음

〈표〉 경제활동인구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6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경제활동 인구	전국	1.1 (0.2)	0.7 (-1.1)	0.7 (-0.1)	0.6 (1.7)	0.7 (1.6)	0.6 (0.8)	0.5 (0.1)
	서울	0.2 (-0.3)	-0.1 (0.0)	0.2 (-0.7)	1 (1.1)	-0.1 (0)	-0.3 (0.3)	0.0 (-0.1)
	남자	0.8 (-0.1)	0.0 (0.0)	-0.3 (-0.5)	0.2 (0.9)	-0.4 (0.2)	0.1 (0.7)	-0.3 (-0.4)
	여자	-0.6 (-0.7)	-0.3 (0.0)	0.9 (-0.9)	2.1 (1.4)	0.4 (-0.2)	-0.8 (-0.4)	0.3 (0.4)
경제활동 참가율	전국	62.8	60.3	60.1	61.1	62	62.4	62.5
	서울	63.1	62.2	61.8	62.4	62.4	62.6	62.5
	남자	75.1	73.6	73.2	73.8	74	74.5	74.1
	여자	51.8	51.4	50.9	51.6	51.5	51.3	51.5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취·업·자 |

6월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

■ 전국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증가

- 2008년 6월 취업자는 23,693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47천명(0.6%)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3,86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1천명(0.7%) 증가하였고, 여자는 10,096천명으로 46천명(0.5%) 증가하였음
- 연령계층별로 보면 15~29세, 60세 이상에서 감소한 반면, 그 외 연령 계층에서는 증가하였음

■ 서울의 취업자 수 전년동월대비 소폭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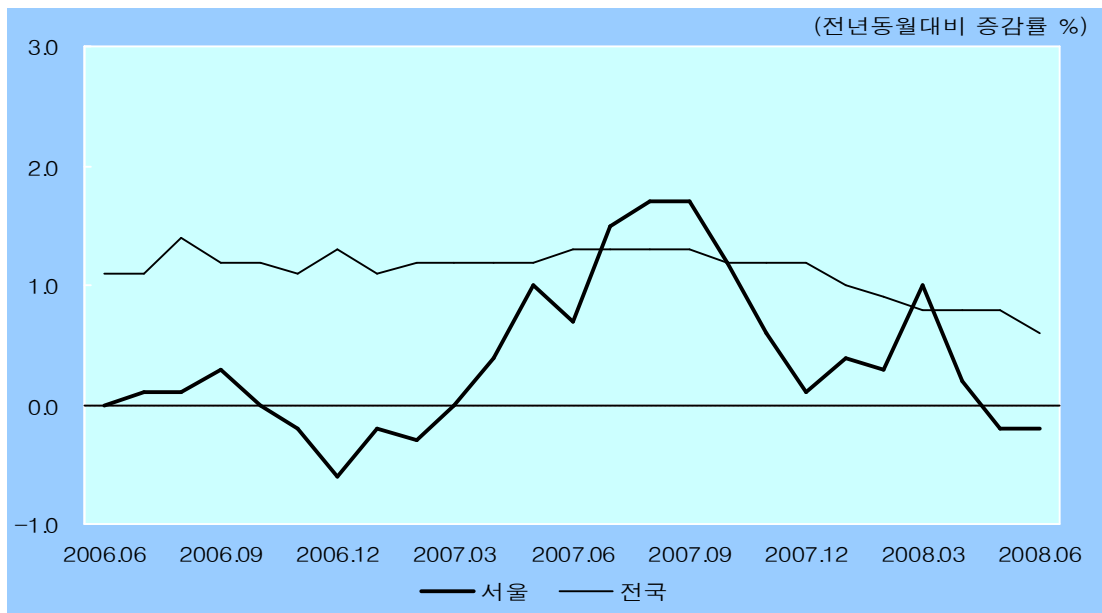
- 6월중 취업자는 4,96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0천명(-0.2%)이 감소하였고, 전월대비 8천명(-0.2%)이 감소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2,853천명, 여자는 2,10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4천명(-0.1%), 여자는 7천명(-0.3%)이 각각 감소하였음
- 전월대비 남자는 12천명(-0.4%)이 증가하였고, 여자는 4천명(0.2%)이 증가하였음
- 산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 1천명(11.4%), 전기·운수·통신·금융업 10천명(1.9%), 도소매·음식숙박업 21천명(1.5%), 건설업 4천명(1.0%)이 각각 증가하였고, 제조업 33천명(-4.7%),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3천명(-0.6%)이 각각 감소하였음
- 전월대비로는 농림어업 1천명(19.5%),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 19천명(1.0%), 도소매·음식숙박업 4천명(0.3%)이 각각 증가하였고, 건설업 17천명(-3.9%), 제조업 15천명(-2.1%)이 각각 감소하였음. 전기·운수·통신·금융업은 전월과 동일하게 나타남

〈표〉 연령별 취업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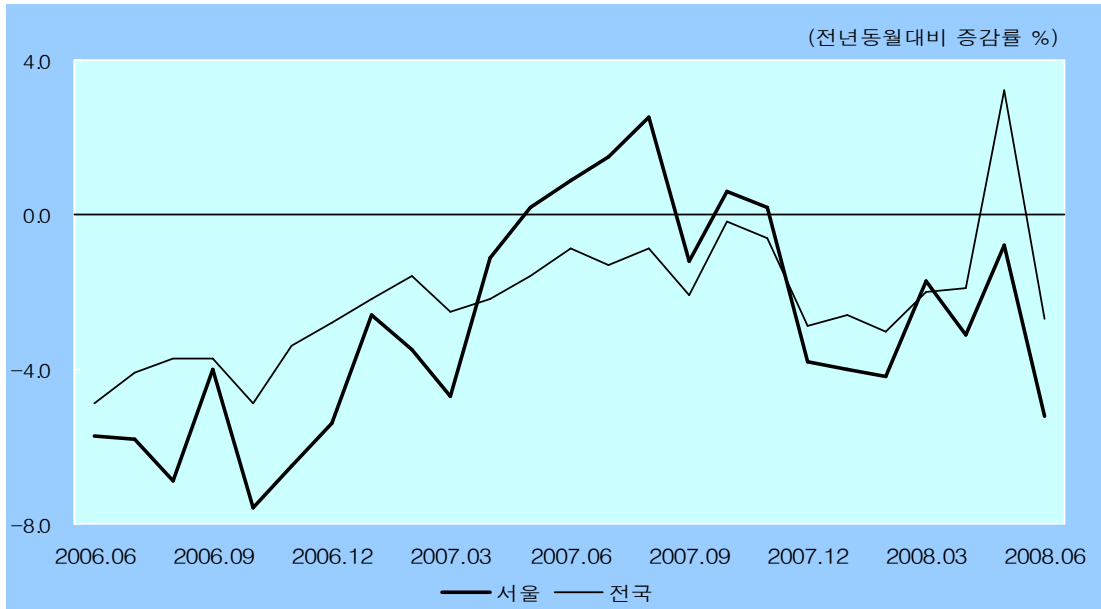
(단위: %)

구 분		2007년	2008					
		6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취업자	전국	1.3 (0.2)	1.0 (-1.3)	0.9 (-0.3)	0.8 (1.8)	0.8 (1.7)	0.8 (1.0)	0.6 (0.1)
	서울	0.7 (-0.1)	0.4 (-0.1)	0.3 (-1.0)	1.0 (1.5)	0.2 (0.3)	-0.2 (0.4)	-0.2 (-0.2)
	남자	1.0 (-0.1)	1.1 (-0.2)	-0.3 (-0.9)	0.4 (1.5)	0.1 (0.3)	0.2 (1.1)	-0.1 (-0.4)
	여자	0.3 (-0.2)	-0.5 (0.1)	1.1 (-1.1)	1.9 (1.5)	0.3 (0.4)	-0.7 (-0.4)	-0.3 (0.2)
청년층 취업자	전국	-2.2 (0.6)	-2.6 (2.5)	-3.0 (-2.5)	-2.0 (-1.2)	-1.9 (0.7)	3.2 (1.2)	-2.7 (-1.2)
	서울	-1.1 (2.5)	-4.0 (3.5)	-4.2 (-3.2)	-1.7 (0.5)	-3.1 (3.1)	-0.8 (3.6)	-5.2 (-2.1)
고령층 취업자	전국	6.6 (5.9)	3.0 (-4.3)	2.3 (0.4)	3.9 (5.2)	1.3 (5.0)	-3.4 (1.4)	0.4 (-0.1)
	서울	7.7 (3.2)	1.3 (-0.1)	0.1 (-1.7)	2.9 (2.5)	-0.9 (0.4)	1.5 (3.4)	0.5 (-2.2)
	55-59세	1.9 (2.3)	7.2 (-0.5)	8.3 (0.0)	7.3 (1.9)	5.7 (0.9)	6.5 (3.0)	9.3 (-0.6)
	60세 이상	12.7 (3.6)	-3.1 (-1.1)	-5.9 (-3.1)	-2.4 (5.4)	-5.9 (0.0)	-2.3 (3.7)	-5.9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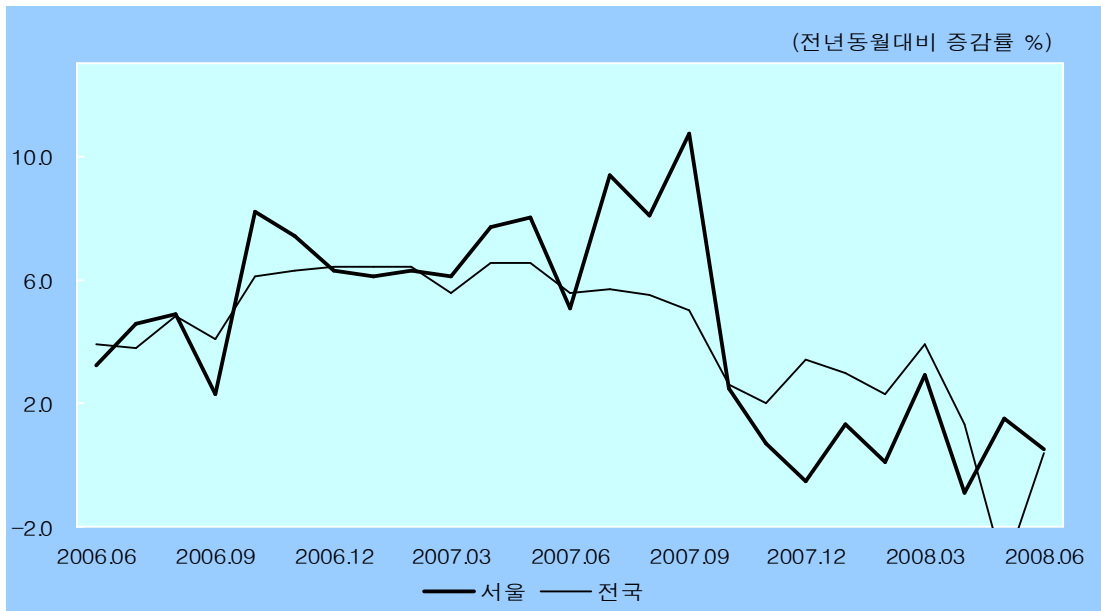
주: ()안은 전월비임. 청년층 취업자는 15세~29세임. 고령층 취업자는 55세 이상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청년층(15~29세) 취업자 증감률 추이



<그림> 서울과 전국의 월별 고령층(55세 이상) 취업자 증감률 추이

■ 농림어업숙련종사자, 서비스판매종사자는 증가

- 취업자를 직업별로 보면 전년동월대비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천명(30.4%), 서비스판매종사자 42천명(3.6%), 사무종사자 23천명(2.8%)이 각각 증가하였고,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종사자 36천명(-2.6%), 전문기술·행정관리자 40천명(-2.5%)이 각각 감소
- 전월대비로는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천명(17.6%), 사무종사자 10천명(1.3%)이 각각 증가하였고, 기능·기계·조작·조립·단순 종사자 18천명(-1.3%), 서비스·판매종사자 1천명(-0.1%)이 감소하였음. 전문·기술·행정관리자는 전월과 동일하게 나타남

■ 비임금근로자 감소, 임금근로자 수 증가세 지속

- 취업자를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비임금근로자는 1,260천명이고, 임금근로자는 3,70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비임금근로자는 49천명(-3.7%)이 감소하였고, 임금근로자는 39천명(1.1%)이 증가
- 전체 취업자 중 비임금근로자 25.4%, 임금근로자 74.6%로 나타났음.
- 비임금근로자 중 자영업주는 전년동월대비 43천명(-3.8%), 무급가족종사자는 6천명(-3.1%)이 각각 감소
-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전년동월대비 27천명(1.4%), 임시근로자는 23천명(1.8%)이 각각 증가하였고, 일용근로자는 11천명(-2.0%)이 감소
- 전월대비로는 비임금근로자 14천명(1.2%)이 증가하였고, 임금근로자 23천명(-0.6%)이 감소

■ 36시간 이상 취업자 전년동월대비 감소

- 취업시간대별로 보면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52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7천명(-1.3%),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4,370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7천명(-0.6%)이 각각 감소

〈표〉 산업별, 직업별, 종사상 지위별 취업동향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6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산업별	제조업	-7.0 (-0.5)	-8.5 (0.3)	-9.6 (-4.4)	-1.0 (8.4)	-2.9 (0.4)	-3.0 (-0.7)	-4.7 (-2.1)
	SOC 및 기타서비스업	2.6 (1.1)	2.1 (-0.1)	2.1 (-0.5)	1.5 (0.4)	0.8 (0.3)	0.3 (0.6)	0.5 (0.1)
	사업·개인·공공서비스	8.8 (1.7)	4.1 (-0.4)	2.5 (-1.4)	1.9 (1.1)	1.0 (0.6)	0.1 (0.8)	-0.6 (1.0)
	도소매·음식숙박	-5.1 (-0.3)	-1.3 (-0.7)	0.7 (-0.1)	0.9 (0.6)	1.0 (-1.6)	1.0 (-0.4)	1.5 (0.3)
	전기·운수·통신·금융	4.1 (3.0)	3.0 (2.0)	3.0 (-0.8)	5.0 (-2.3)	0.9 (1.4)	-0.1 (2.0)	1.9 (0.0)
	건설업	0.5 (0.1)	3.1 (1.0)	4.0 (3.0)	-2.5 (0.5)	-1.1 (3.6)	-0.4 (0.8)	1.0 (-3.9)
직업별	전문·기술·행정관리자	2.8 (0.5)	4.6 (-0.5)	1.4 (-2.4)	3.3 (1.9)	1.1 (-0.6)	1.3 (0.7)	-2.5 (0.0)
	기능·기계작·조립·단순종사자	-1.5 (1.1)	-2.5 (-0.2)	-5.2 (-1.9)	-5.1 (1.4)	-3.8 (3.6)	-4.2 (0.8)	-2.6 (-1.3)
	서비스·판매종사자	0.7 (0.1)	1.8 (0.2)	5.5 (-0.3)	4.7 (2.1)	2.3 (-3.3)	1.5 (-0.6)	3.6 (-0.1)
	사무종사자	2.9 (1.8)	-3.9 (0.6)	0.3 (2.1)	2.3 (0.1)	2.4 (2.3)	1.4 (0.8)	2.8 (1.3)
종사상 지위별	임금근로자	1.9 (0.9)	0.9 (0.6)	0.4 (-1.5)	1.0 (0.8)	0.8 (1.5)	1.1 (1.2)	1.1 (-0.6)
	비임금근로자	-1.2 (0.5)	-0.8 (-1.9)	0.2 (0.4)	1.2 (3.5)	-1.5 (-2.9)	-3.8 (-1.9)	-3.7 (1.2)

주: ()안은 전월비임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 실·업·률 |

6월 서울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증가

■ 전국의 실업률 전년동월대비 소폭 하락

- 2008년 6월 실업자는 764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3천명(-1.7%) 감소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47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6천명(-7.1%) 감소하였고, 여자는 287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3천명(8.8%)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3.1%로 전년동월대비 0.1%p 하락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3.3%로 전년동월대비 0.3%p 하락하였고, 여자는 2.8%로 전년동월대비 0.2%p 상승하였음
- 계절조정 실업률은 3.2%로 전월대비 변동이 없었음
- 연령계층별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20대이하, 40대, 60세이상에서 증가한 반면, 그 외 연령계층에서는 감소하였음
- 실업률은 20대이하, 60세이상에서 상승하였고, 40대에서는 변동이 없었으며, 나머지 연령계층에서는 하락하였음

■ 서울의 전년동월대비 실업률 증가, 전월대비 소폭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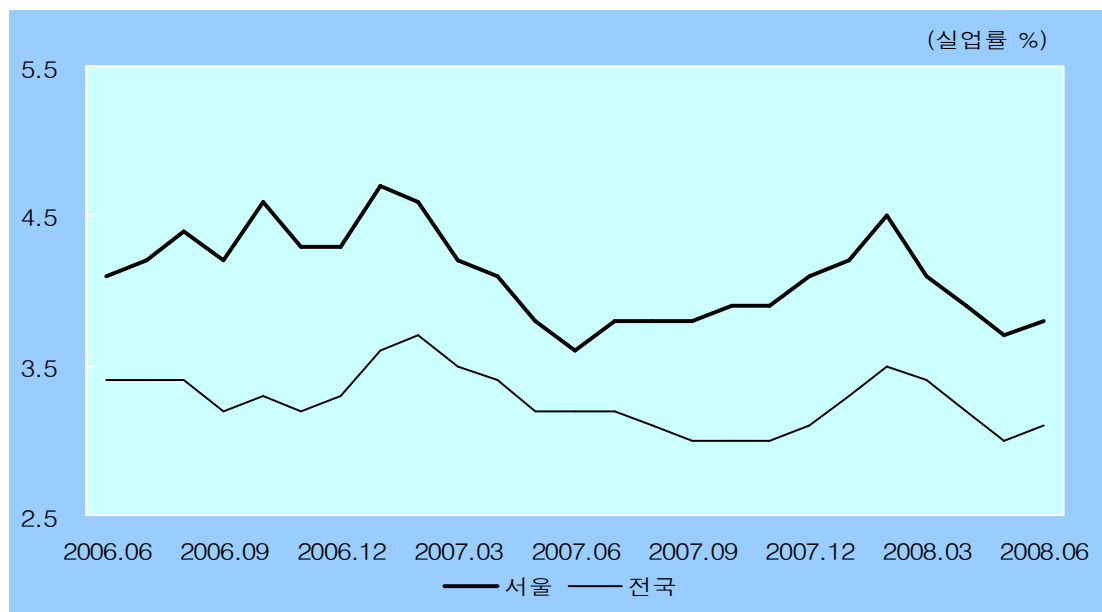
- 2008년 6월중 실업자는 196천명, 실업률은 3.8%로 전년동월대비 실업자는 9천명(4.6%), 실업률은 0.2%포인트 각각 증가하였음
- 성별로 보면 남자는 118천명으로 5천명(-4.3%)이 감소하였고, 여자는 78천명으로 14천명(22.0%)이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남자는 0.1%포인트 감소하였고, 여자는 0.7%포인트 증가하였음
- 전월대비 실업자는 5천명(2.6%), 실업률은 0.1%포인트 각각 증가하였음
- 실업자를 성별로 보면 남자는 1천명(-0.5%)이 감소하였고, 여자는 6천명(7.7%)이 증가하였음
- 실업률은 남자는 전월과 동일하게 나타났고, 여자는 0.3%포인트 증가하였음

〈표〉 실업동향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6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전국	3.2	3.3	3.5	3.4	3.2	3.0	3.1	
서울	3.6	4.2	4.5	4.1	3.9	3.7	3.8	
성 별	남자	4.1	4.6	5.0	4.4	4.3	4.0	4.0
	여자	2.9	3.6	3.8	3.8	3.3	3.3	3.6

자료: 통계청,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실업률 추이

| 건 · 설 · 경 · 기 |

2008년 5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대비 증가

■ 5월 서울의 건설수주액 전년동월 대비 증가

- 전국의 건설수주액은 8조 4,318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8.8% 증가함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2조 7,315억원으로 전년동월대비 113.9%가 증가됨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액은 전국대비 32.4%를 차지함
- 서울지역의 건설수주에서 공공부문은 전년동월대비 4140.7%가 증가하고, 민간부문에서는 74.9%가 증가함
- 공공부문은 신규주택 공사 및 철도공사 부문의 발주 증가가 원인이며, 민간부문은 사무실 공사 및 재건축재개발주택 공사부문의 발주 증가로 건설수주액의 증가가 생김

■ 서울의 건축허가면적 전년동월 대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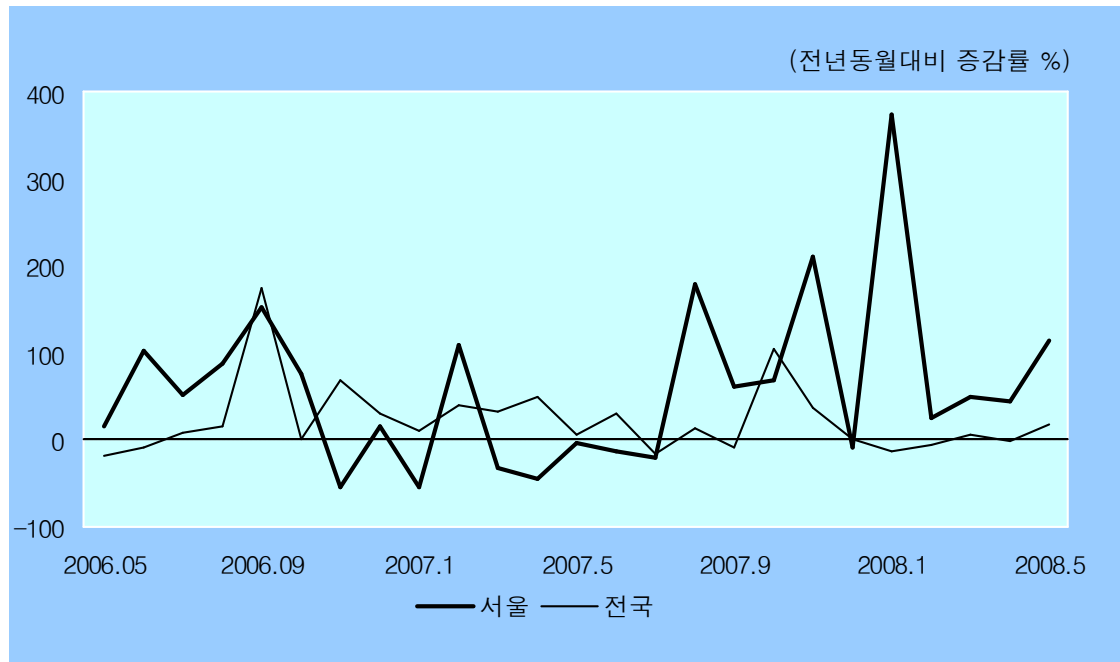
- 2008년 5월 서울의 건축허가면적은 4,690.4천㎡로 전년동월 대비 -10.1% 감소함
- 주거용 건축허가면적 중 단독주택의 건축허가면적은 전년동월대비 -14.4% 감소하고, 연립주택은 -90.4% 감소, 아파트는 22.8% 증가함. 전체적으로 전년동월 대비 -13.7% 감소됨
- 비주거용 건축허가면적의 경우 전년동월 대비 상업(-12.4%), 문교 및 사회(-23.3%)는 감소하고, 공업(128.7%) 및 기타(-116.8%) 부문은 증가하였음

〈표〉 건설수주액

(단위: 십억 원, %)

구분	2007년		2008년				전년동월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5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전국	7,096.3	5,570	5,931	8,366	7,645	8,431	18.8	10.3	
서울	1,277.0	1,997	1,078	1,139	1,423	2,731	113.9	91.9	
발주 자별	공공	15.8	63	88	232	135	671	4146.8	397.0
	민간	1,171.3	1,933	990	889	1,288	2,049	74.9	59.1
공종 별	건축	1,233.6	1,953	1,031	1,100	1,417	2,307	87.0	62.8
	토목	36.5	43	46	37	5	423	1058.9	8360.0

주: 발주자별 수주액은 국내외국기관, 민자공사 수주액이, 공종별 수주액은 전문공사 수주액이 제외된 수치임
자료: 서울지방통계청



〈그림〉 서울과 전국의 건설수주액 추이

〈표〉 건축허가면적

(단위: 천㎡, %)

구 분	2007년	2008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전월대비 증감률	
	5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서울	5,219,668	1,534.8	2,919.6	1,706.4	3,342.4	4,690.4	-10.1	40.3	
주거용	소계	304,444	130.6	252.9	49.0	95.1	262.7	-13.7	176.2
	단독	15,399	7.9	6.0	7.4	15.4	13.1	-14.4	-14.9
	연립	91,656	89.7	1.3	2.0	14.6	8.8	-90.4	-39.7
	아파트	196,135	33.0	252.5	39.6	65.1	240.8	22.8	269.9
비주거용	소계	4,915,224	1,404.2	2,666.7	1,657.4	3,247.3	4,427.7	-9.9	36.4
	상업	4,298,279	872.2	1,862.2	1,036.7	2,368.5	3,764.0	-12.4	58.9
	공업	89,650	116.9	48.6	50.6	152.1	204.9	128.7	34.7
	문교/사회	465,762	361.0	738.9	502.3	673.3	357.1	-23.3	-47.0
	기타	46,974	54.1	16.9	67.8	53.4	101.7	116.8	90.4

자료: 서울시 건축과

| 주 · 택 · 매 · 매 · 가 · 격 |

6월 서울 강북지역의 주택매매가격 상승세 전월 대비 완화

- 6월 기준 전국의 주택매매가격 상승폭은 전월과 동일
 - 6월 전국의 주택매매가격은 계절적 비수기로 거래가 한산해진 가운데 전월대비 0.6% 상승으로 전월과 동일한 상승세를 유지함
 - 전국 142개 시·군·구 가운데 가격이 상승한 지역은 102개 지역이고 보합인 지역은 21개 지역, 하락한 지역은 19개 지역으로 주택매매가격 상승 지역이 많음
- 6월 기준 서울 강북지역의 주택매매가격 상승폭 전월대비 다소 완화
 - 서울은 전월대비 0.7% 상승한 가운데 강북지역은 1.0% 상승, 강남지역은 0.4% 상승으로 전월에 비해 상승폭이 다소 완화됨
 - 강북지역에서는 강북구가 드림랜드 공원화 및 경전철 호재로 1.8%의 높은 상승세를 보였으며, 성북구는 장위 뉴타운 및 주변 재개발 이주수요 증가로 1.6%의 상승률을 보임
 - 강남지역에서는 강서구가 지하철 9호선 개통을 앞두고 1.3%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금천구는 군부대 이전, 신(新)안산선 개통 예정 등의 호재로 1.0% 상승세를 이어감

〈표〉 매매가격 지수 증감률

(2007.12=100.0,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6월	5월	5월	6월	
전국	98.6	102.9	102.9	103.5	4.9
서울	97.6	105.4	105.4	106.2	8.7
아파트	98.6	105.3	105.3	105.9	7.4
지역별 주택매매					
강북	96.2	107.9	107.9	108.9	13.2
강남	98.9	103.0	103.0	103.4	4.5

주: 전월대비 증감률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강북 주요 상승지역은 강북구, 성북구, 노원구, 서대문구
 - 강북 지역은 전월에 비해 주택매매가격이 1.0% 상승하여, 상승폭은 완화되었음

- 강북구는 드림랜드 공원화, 경전철 등 상승호재가 많아 1.8%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성북구도 뉴타운 및 재개발 호재로 높은 상승세를 나타냈음
- 그 밖에도 노원구(1.4%), 서대문구(1.2%)는 강북 지역 평균 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도봉구(1.0%), 중랑구(1.0%)는 강북 지역 평균 상승세에 일치하고 있었음
- 반면 종로구성동구는 0.1% 상승률을 보여 강북지역 평균을 크게 하회하고 있었음

■ 강남 주요 상승지역은 강서구, 금천구, 구로구, 관악구

- 강남 지역 주택매매가격은 전월대비 0.4% 상승하여 상승폭이 완화되고 있었음
- 강서구(1.3%), 금천구(1.0%)와 같이 지하철 개통 등 호재가 있는 지역은 상승세를 보인 반면 강동구(-0.5%)와 강남구(-0.2%)는 규제완화가 불투명해지는데 따른 실망감으로 매물이 급증하여 큰 하락세를 보이고 있었음. 또한 송파구(-0.1%)도 재건축 단지 입주물량이 증가하면서 올 들어 처음으로 하락하였음

■ 6월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 전월대비 둔화

- 서울 아파트의 평균 평당매매가격은 1,824만원이며, 이를 상회하는 구는 강남구(3,476만원), 서초구(2,724만원), 용산구(2,538만원), 송파구(2,455만원), 양천구(2,048만원), 강동구(1,851만원), 광진구(1,867만원)으로 나타났음
- 2008년 5월까지 아파트 평당매매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구는 금천구(996만원)가 유일하였으나, 2008년 6월 16일 현재 기준으로 금천구의 평당 매매가격이 1,006만원이 됨에 따라 서울시내 1,000만원 미만의 평당매매가격 지역은 존재하지 않음

| 주 · 택 · 전 · 세 · 가 · 격 |

6월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에 비해 안정

- 6월 기준 전국의 주택전세가격 상승세는 전월대비 안정된 모습
 - 전국의 주택전세가격 상승율은 전월과 동일한 0.3%로, 서울 강북지역과 인천 등 지역을 제외하고는 상승지역이 전월에 비해 감소하고 있었음
- 6월 기준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전월에 비해 안정
 - 서울의 주택전세가격은 0.3% 상승으로 전반적으로 전월에 비해 안정된 모습을 보였으나, 강북지역의 상승폭이 확대된 반면 강남지역은 상승폭이 축소되었음
 - 강북 지역에서는 서대문구가 가재울 뉴타운 이주 수요 증가로 전세물량 부족 현상이 심화되어 2.1%의 높은 상승률을 보였고, 강북구도 재개발에 따른 전세물량 부족으로 1.5% 상승폭이 확대됨. 한편 노원구는 비수기에 따른 수요 감소와 전세물량 증가로 0.1% 하락하였음
 - 강남 지역은 모든 구에서 0.1%~0.2% 상승률을 보여 전세가격이 안정된 모습을 보임

〈표〉 전세가격 지수 증감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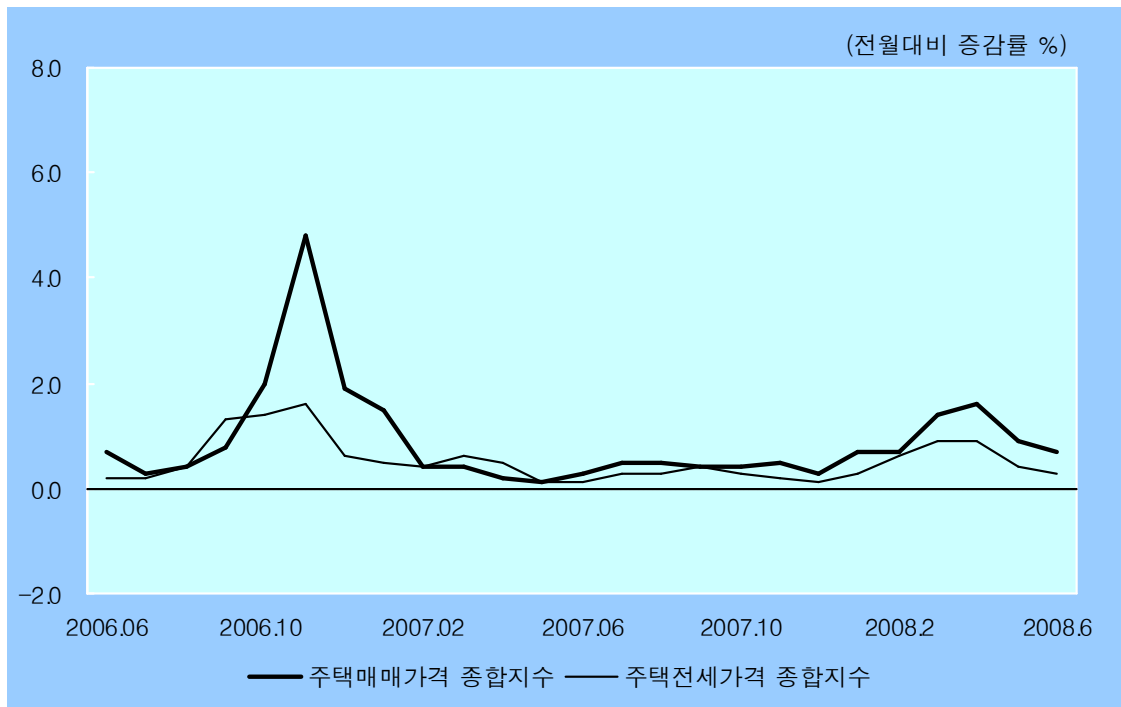
(2007.12=100.0, 단위: %)

구 분	2007년		2008년		전년동월대비 증감률
	6월	5월	6월	5월	
전국	99.0	102.0	102.3	102.0	3.3
서울	98.6	103.1	103.4	103.1	4.9
아파트	99.8	102.0	102.0	102.0	2.2
지역별 주택전세					
강북	97.7	104.1	104.7	104.1	7.2
강남	99.4	102.0	102.1	102.0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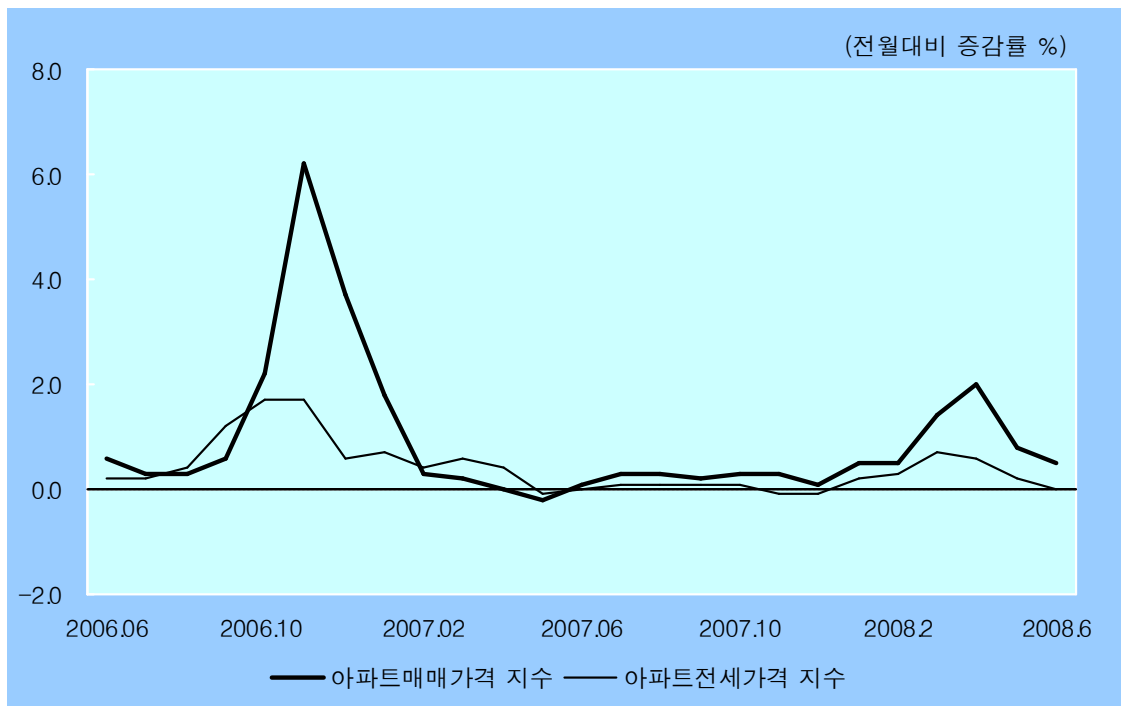
주: 전월대비 증감률
 자료: 국민은행연구소

- 주요 상승지역은 서대문구, 강북구, 광진구, 성북구, 양천구, 동작구 등
 - 강북 지역에서는 뉴타운과 재개발 수요로 서대문구(2.1%)와 강북구(1.5%)가 높은 상승률을 보인 가운데 광진구(1.0%)와 성북구(0.9%), 동대문구(0.6%) 등이 강북의 평균 전세가격상승률(0.3)보다 높은 지역으로 조사되었음
 - 이에 비해 강남지역은 평균 전세가격 상승률이 0.1%로, 대부분이 0.2% 또는 0.1% 상승률을 보이고 있었고, 이 보다 낮은 경우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상당히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었음

-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지속적으로 하락세 유지
 -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2006년 11월 45% 미만 수준으로 하락한 이후 2008년 5월 39.8%, 2008년 6월 현재 39.3%로 하락세를 유지하고 있음
 - 2008년 6월중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격/매매가격 비율은 전월에 비해 0.5% 하락하였음
 - 서울은 전국 평균 52.8%를 13.5%p 밀돌고 있으며 전국과의 격차(1월: 12.0%p, 2월: 12.1%p, 3월: 12.4%p, 4월: 13.1%p, 5월: 13.3%p, 6월: 13.5%p)는 확대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음
 - 이것은 최근 서울지역이 전세가격에 비해 매매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상대적으로 전세가격 비중이 낮아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
 - 지역적으로 보면 강북은 42.4%, 강남은 36.7% 로 강남과 강북의 격차는 5.7%이며, 강남·북간 차이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3월: 8.7%p, 4월: 7.1%p, 5월: 6.4%p, 6월: 5.7%p)



〈그림〉 서울의 주택매매가격 및 주택전세가격 지수 추이



〈그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및 아파트 전세가격 지수 추이

| 시 · 중 · 자 · 금 · 사 · 정 |

6월 코스피 지수는 5월 이후 하락세 지속

- 국고채(3년) 유통수익률 대폭 상승
 - 6월 중 국고채(3년)유통수익률은 유가 및 환율 오름세 지속, 높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증대 등으로 큰 폭 상승함
(5월말 5.46% → 6월말 5.90% → 7.8일 6.02%, 5월말 대비 +56bp)
- CD(91일) 유통수익률은 소폭 상승
 - 5월말 5.36% → 6월말 5.37% → 7.8일 5.41%, 5월말 대비 +5bp)
- 6월 기준 장·단기 금리차 확대
 - 6월말 장·단기 금리차는 0.53%p로 국고채(3년)이 대폭 상승한데 비해 CD 유통수익률은 상대적으로 확대 폭이 작아 전월 대비 격차가 확대됨
- 6월 기준 KOSPI 지수 조정 국면 진입
 - KOSPI 지수는 유가 급등에 따른 경제전망 불투명, 신용위기 경계감 재연 등의 영향으로 5월 중순 이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음
(5월말 1,852p → 6월말 1,675p → 7.8일 1,533p, 5월말 대비 -17.2%)
- 6월중 외국인 투자자는 현물·선물 모두 큰 폭 순매도
 - 유가 급등, 경제전망 불투명 등 불안감 확산으로 외국인 투자자는 순매도 추세를 이어가고 있음
 - 기관투자자는 국내 증시 저평가 인식으로 순매수 전환하였음
 - 외국인(현물): 08.4월 -1.0조원 → 5월 +0.9조원 → 6월 -5.2조원
 - 외국인(선물): 08.4월 +2.3조원 → 5월 -1.1조원 → 6월 -1.9조원
 - 기관투자자: 08.4월 +1.2조원 → 5월 -0.8조원 → 6월 +2.2조원

〈표〉 주요 금융지표 추이

(기말, 단위: %, %p, p)

구 분	2007년	2008년						전월대비 증감
	6월	2월	3월	4월	5월	6월		
금 리	국고채(3년)	5.26	4.97	5.10	4.88	5.46	5.90	8.06
	CD(91일물)	5.00	5.18	5.38	5.36	5.36	5.37	0.19
	콜금리(1일)	4.52	4.97	4.97	4.99	4.97	4.95	-0.40
	장단기 금리차 ¹⁾	0.74	-0.21	-0.28	-0.48	0.42	0.53	26.19
주 가	KOSPI ²⁾	1,743.6	1,689.5	1,651.1	1,776.6	1,846.8	1,758.17	-4.80
	KOSDAQ ²⁾	778.7	647.4	627.5	647.8	649.5	619.33	-4.65
환율 (₩/US\$) ²⁾	923.8	944.7	982.5	987.2	1,038.2	1,031.07	-0.69	

주: 1) 장단기 금리차 = 국고채-CD

2) 종합주가지수, 코스닥지수, 환율은 전월대비 증감률임

자료: 한국은행

■ 6월 기준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폭 확대

-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액은 전월보다 확대됨
(5월 +2.7조원 → 6월 +3.1조원)
- 주택담보대출은 명목증가폭(+1.5조원 → +1.3조원)이 전월 보다 소폭 축소되었으나 주택금융공사 앞 대출채권 매각 등을 감안할 경우 실질증가폭이 3.2조원으로 큰 폭으로 확대됨
-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여타대출은 신용카드 결제금액이 늘어나면서 전월보다 확대된 1.8조원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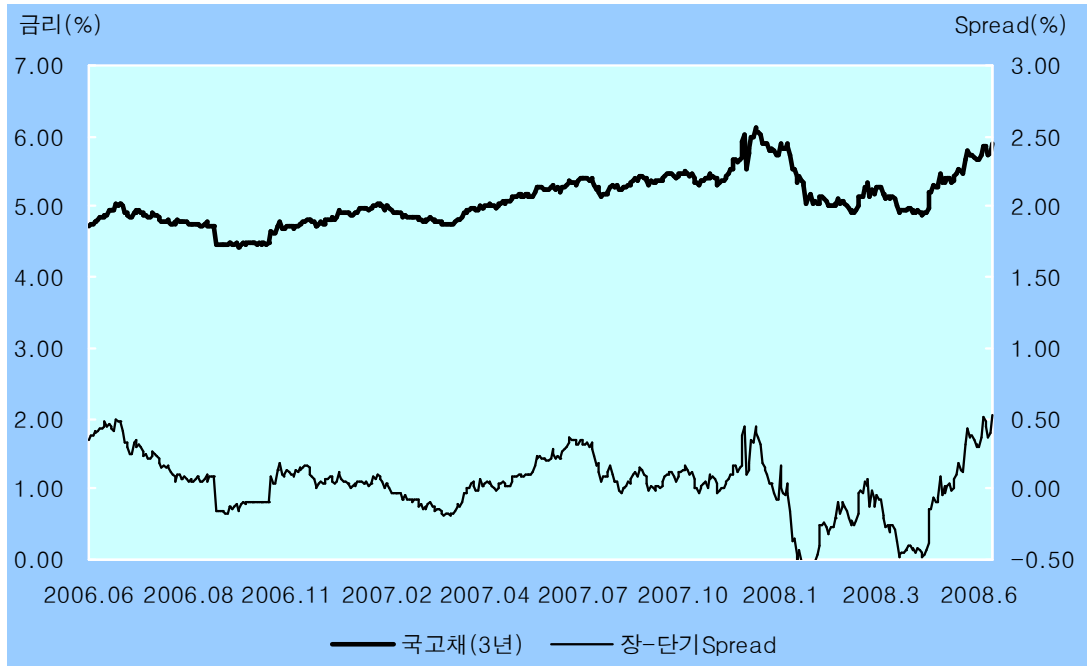
〈표〉 가계대출 증감 추이

(기간 중 말잔 증감, 단위: 조 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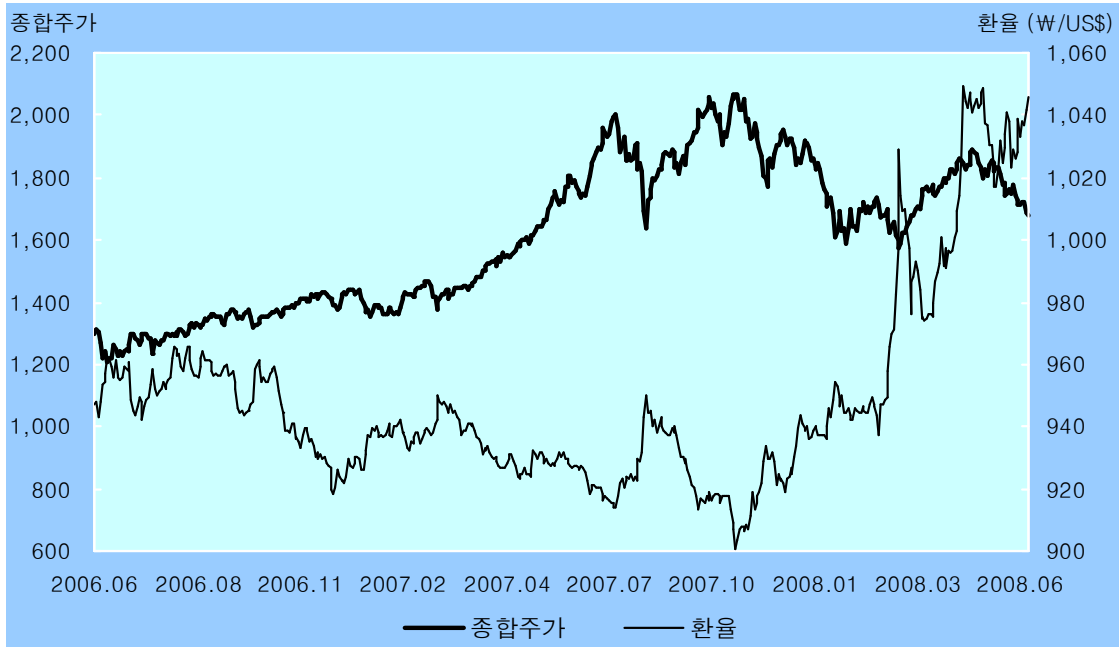
구 분	2007년	2008년						월말잔액		전 월비
	연중	2월	3월	4월	5월	6월	2008년			
							5월	6월		
가계대출 ¹⁾	17.8	2.3	2.4	3.4	2.7	3.1	373.6	376.7	0.82	
주택담보대출 ²⁾	4.6	0.8	1.0	2.4	1.5	1.3	228.1	229.5	0.61	
마이너스통장대출 등	13.0	1.5	1.4	1.0	1.2	1.8	143.6	145.4	1.25	

주: 1) 종별대출은 신탁 제외 2) 주택자금대출 포함

자료: 한국은행



<그림> 주요 금리추이



<그림> 종합주가 및 환율 추이

■ 5월 기준 서울지역 대출금 소폭 증가

- 5월 전국의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1,126조 818억원으로, 전월대비 10조 7,842억 원이 증가함
- 5월말 서울지역 금융기관 대출금 잔액은 455조 8,126억원 규모로 나타났음

〈표〉 서울시 금융기관¹⁾ 대출금 잔액 추이

(말잔, 단위 : 십억 원)

		2007년	2008년				전월대비 증감액
		5월	2월	3월	4월	5월	
전국	예금은행	735,674.4	822,528.9	833,537.3	849,091.3	858,336.1	9,244.8
	비은행기관	231,644.8	258,043.2	264,349.6	266,942.6	268,482.0	1,539.4
	합계	967,319.2	1,080,572.1	1,097,886.9	1,116,033.9	1,126,818.1	10,784.2
서울	예금은행	304,590.3	352,812.4	358,932.4	367,426.6	371,719.0	4,292.4
	비은행기관	70,035.4	80,187.3	84,192	84,265.6	84,093.6	-172.0
	합계	374,625.7	432,999.7	443,124.4	451,692.2	455,812.6	4,120.4

주: 1) 예금은행과 비은행금융기관(한국수출입은행, 종합금융회사, 신탁회사, 상호저축은행,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을 합한 예금취급기관 기준, 생명보험사 및 증권금융은 제외됨

■ 5월중 서울의 예금은행 예대율 상승으로 전환

- 서울의 5월 중 자금의 지역환류도를 나타내는 예대율(총대출금잔액/총예수금잔액)은 4월보다 1.87%p 상승한 59.9%를 기록함
- 전국적인 예금은행 예대율도 상승 추세로 전환하였으나, 서울의 예대율 상승 폭에는 못 미치는 0.57%p를 기록하였음

〈표〉 지역별 예금은행 예대율¹⁾ 추이

(단위 : %, %p)

	2007년	2008년				전월대비 증감율
	5월	2월	3월	4월	5월	
전국	84.6	86.8	88.0	87.3	87.8	0.57
서울	56.1	58.7	59.5	58.8	59.9	1.87

주: 1) 총대출금(금융자금대출+재정자금대출)/총예수금(요구불예금+저축성예금+CD+금융채), 2002년부터 산업은행 포함

| 창·업·동·향 |

5월 기준 서울 신설법인 수 전월대비 감소

- 전국 신설법인 수 전년동월 대비 감소
 - 5월 전국의 신설법인 수는 4,113개로 전년동월 대비 8.8%(398개) 감소함
 - 전월비로 보았을 때는 3개월만에 감소(14.1%, 677개)한 것임
 - 이는 고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수급 불안 등의 대외여건 악화와 이에 따른 국내 물가상승이 내수부진과 연결된 것으로 추정됨
 - 특히 자본금 규모 5천만원 이하의 소규모 창업이 65.8%를 차지하였으며, 이중 서비스업이 주류(46.8%)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서울 전월대비 신설법인 수 감소
 - 5월 서울의 신설법인 수는 1,487개로, 전월대비는 -11.8%(-200개) 감소하였음
- 서울 서비스업의 신설법인 수 대폭 감소
 - 서울의 서비스업은 전월대비 신설법인수가 -140개 감소하여 타 산업에 비해 감소폭이 매우 컸음

〈표〉 산업별 신설업종

(단위: 개소, %)

구분	2007년	2008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5월	2월	3월	4월	5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4,511	3,829	4,670	4,790	4,113	-677	-14.13	-398	-8.82
서울	1,692	1,399	1,669	1,687	1,487	-200	-11.86	-205	-12.12
서비스업	1,421	1,185	1,374	1,352	1,212	-140	-10.36	-209	-14.71
제조업	138	108	101	145	128	-17	-11.72	-10	-7.25
건설 및 설비업	132	106	189	187	143	-44	-23.53	11	8.33

자료: 중소기업청

| 어 · 음 · 부 · 도 · 율 |

서울 어음부도율 하락세 유지

■ 전국 어음부도율 하락세 유지

- 6월 전국의 어음부도율은 0.03%로 전월(0.04%)보다 -0.01%p 하락함
- 전국의 부도업체 수는 191개로, 전월(202개) 보다 11개 감소함
-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은 전월보다 21개 감소하였으나, 제조업과 건설업은 각각 7개, 8개씩 증가하였음

■ 서울 어음부도율 하락세 유지

- 서울의 어음부도율은 0.02%로 전월 0.03% 보다 -0.01%p 하락함
- 서울의 부도업체 수는 63개로 전월보다 12개 감소하였으며, 지방은 128개로 1개가 증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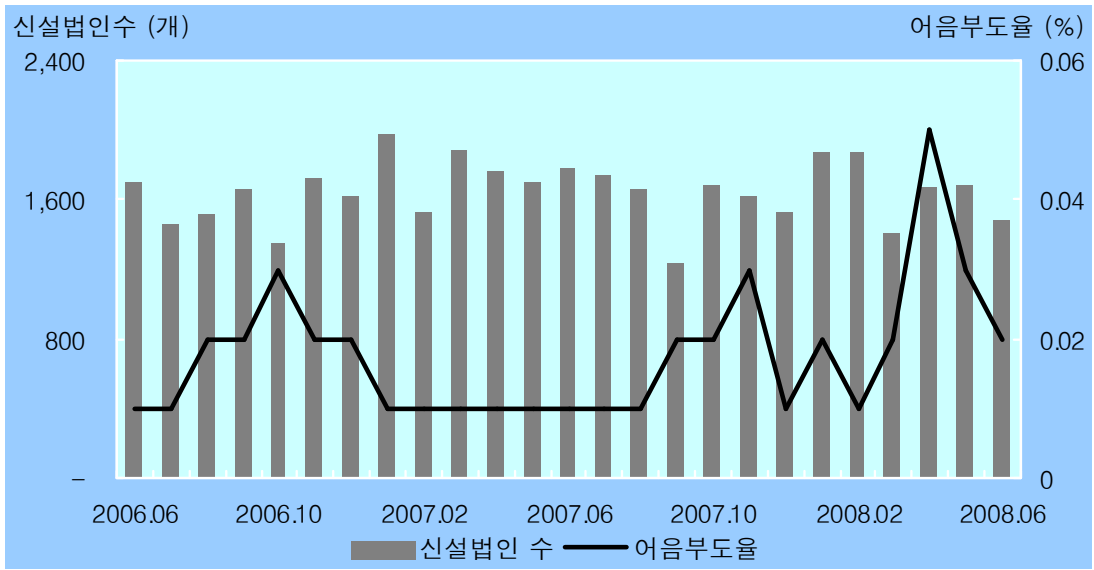
〈표〉 어음부도율 및 부도업체 수

(단위: 개소, %, %p)

구 분	2007년	2008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6월	3월	4월	5월	6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어음부도율	0.03	0.03	0.06	0.04	0.03	-0.01	-25.00	0	0.00
	부도업체 수	173	176	234	202	191	-11	-5.45	16	10.40
서울	어음부도율	0.01	0.02	0.05	0.03	0.02	-0.01	-33.33	0.01	100.00
	부도업체 수	63	72	79	75	63	-12	-16.00	0	0.00

주: 어음부도율은 전자결제 조정 후 수치임, 부도업체 수는 당좌거래정지업체 기준임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자료

자료: 한국은행



<그림> 서울의 창업 및 어음부도율 동향

| 신 · 용 · 보 · 증 · 동 · 향 |

소상공인의 보증 비중 증가

■ 지속적인 보증공급 증가 추세

-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한 서울시 신용보증은 6월중 5,438건, 79,027백만원 공급하여 전월대비 건수는 74.9% 금액은 47.6% 증가함
- 「뉴스타트 2008 영세자영업자 특례보증」(1천만원 이하 소액보증)의 지속적인 수요 증가로 인하여 보증 공급 및 금액이 대폭 증가한 반면 건당 평균금액은 다소 감소함

〈표〉 월간 신용보증 추이

(단위: 건, 백만원, %p)

구 분	2007년	2008년					전월비		(전년동월비)	
	6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건수	2,009	983	1,319	1,396	3,109	5,438	2,329	74.9	3,429	170.7
금액	38,007	32,211	52,566	54,741	53,541	79,027	25,486	47.6	41,020	107.9
건당평균금액	18.9	32.8	39.9	39.2	17.2	14.5	-2.7	-15.7	-4.4	-23.3

주: 전년동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제조업의 비중(금액기준) 감소세

- 6월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은 음식·숙박업의 비중(금액기준)이 3.2%p 증가하여 21.6%를 나타낸 반면 제조업의 비중(금액기준)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11.3%를 나타냄

〈표〉 월간 업종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구 분	제조업	도·소매업	음식·숙박업	서비스업	기타	합계
건수	448	2,102	1,411	1,096	381	5,438
비율	8.2	38.7	25.9	20.2	7.0	100
금액	8,912	29,289	17,094	17,155	6,577	79,027
비율	11.3	37.1	21.6	21.7	8.3	10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 전월수준의 비중(금액기준)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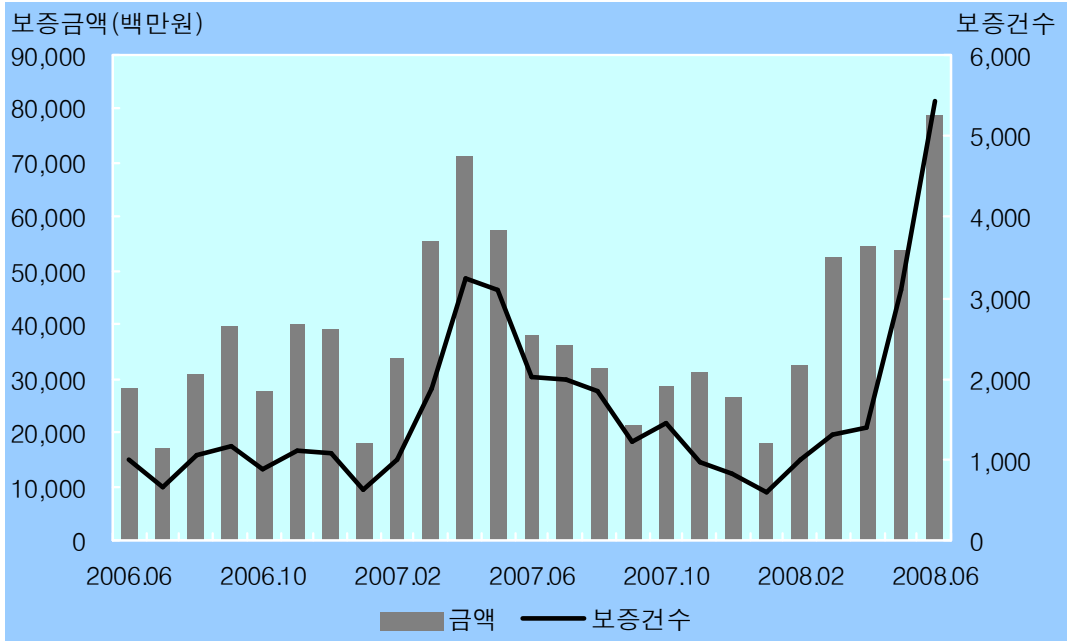
- 소상공인의 비중(금액기준)이 1.8%p 증가하여 85%를 나타내는 등 소기업·소상공인 및 중기업의 비중(금액기준)이 전월 수준을 유지함

〈표〉 월간 기업규모별 신용보증 현황

(단위: 건, 백만원, %, %p)

구분		2008.04	2008.05	2008.06	전월대비증감
소상공인	건수	1,227	2,974	5,236	2,262
	비율	87.9	95.6	96.3	0.7
	금액	37,584	44,524	67,140	22,616
	비율	68.6	83.2	85.0	1.8
소기업	건수	134	111	159	48
	비율	9.6	3.6	2.9	-0.7
	금액	12,136	6,907	8,074	1,167
	비율	22.2	12.9	10.2	-2.7
중기업	건수	35	24	43	19
	비율	2.5	0.8	0.8	0
	금액	5,021	2,110	3,813	1,703
	비율	9.2	3.9	4.8	0.9
합계	건수	1,396	3,109	5,438	2,329
	비율	100	100	100	0
	금액	54,741	53,541	79,027	25,486
	비율	100	100	100	0

자료: 서울신용보증재단



〈그림〉 서울의 보증금액 및 보증건수 동향

| 수 · 출 · 입 · 동 · 향 |

서울의 수입 원자재 중심으로 증가

■ 전국 수출과 수입 모두 증가세

- 6월 전국의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15.9% 증가한 51.2억달러, 수입은 32.4% 증가한 92.4억달러로 무역수지는 적자로 전환됨
- 수출의 경우 원료 및 연료가 석유제품의 수출 증가에 힘입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수입의 경우 원자재가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원유 등 연료와 철강재, 광물의 급증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임

■ 전국 수입 중 원자재는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 수입 가운데 원자재는 유가상승에 따른 원유 등 연료(71.9%↑)와 철강재(57.1%↑), 광물(22.7%↑)의 급증으로 전체적으로 45.0%의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함
- 자본재의 수입증가세(12.5%↑)는 소비재(26.9%↑)에 비해 비교적 완만하게 증가하였고, 소비재 중에서는 곡물(63.9%↑)과 전자제품(60.6%↑)의 증가폭이 컸음

■ 6월 기준 서울 수출은 전년동월대비 증가

- 6월 서울의 수출은 높은 증가율을 보인 정밀화학원료(109.0%↑), 반도체(40.4%↑), 컴퓨터(33.2%↑) 등의 주도로 14.2% 증가함

■ 6월 기준 서울 수입은 원자재를 중심으로 전년동월대비 증가

- 서울의 LPG의 수입은 전월에 이어서도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철근·철강판 원료 수입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특히 LPG는 에너지 원자재 공급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당분간 수입 증가세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석유제품의 수입은 고유가 상황을 반영해 낮은 증가율(7.9%↑)을 보이고 있음

<표> 수출입

(단위: 백만 불, %)

구분	2007년	2008년						전년동월비		(전월비)	
	6월	2월	3월	4월	5월	6월	증감	증감률	증감	증감률	
전국	수출	32,200	31,157	36,046	37,843	39,389	37,323	5,123	15.9	-2,066	-5.2
	수입	28,508	32,406	36,863	38,038	38,469	37,756	9,248	32.4	-713	-1.9
서울	수출	2,360	2,934	2,761	3,185	2,985	2,696	336	14.2	-289	-9.7
	수입	5,774	6,437	7,431	8,217	7,724	7,146	1,372	23.8	-578	-7.5

주: (전월비)는 부지표임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출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8년 6월		2007년 6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반도체	210,800	40.4	150,092	-16.1
2	편직물	180,153	-8.6	197,080	10.5
3	자동차부품	129,711	21.3	106,928	18.9
4	고무제품	124,019	24	99,985	9
5	컴퓨터	108,438	33.2	81,390	0.3
6	합성수지	103,293	6.5	97,002	14.1
7	의류	103,047	-15.7	122,269	-16.2
8	무선통신기기	88,274	8.6	81,291	-6.5
9	인조장섬유직물	78,272	-1.4	79,359	15.8
10	정밀화학원료	61,485	109	29,421	1.5
	합계	2,695,826	14.2	2,359,766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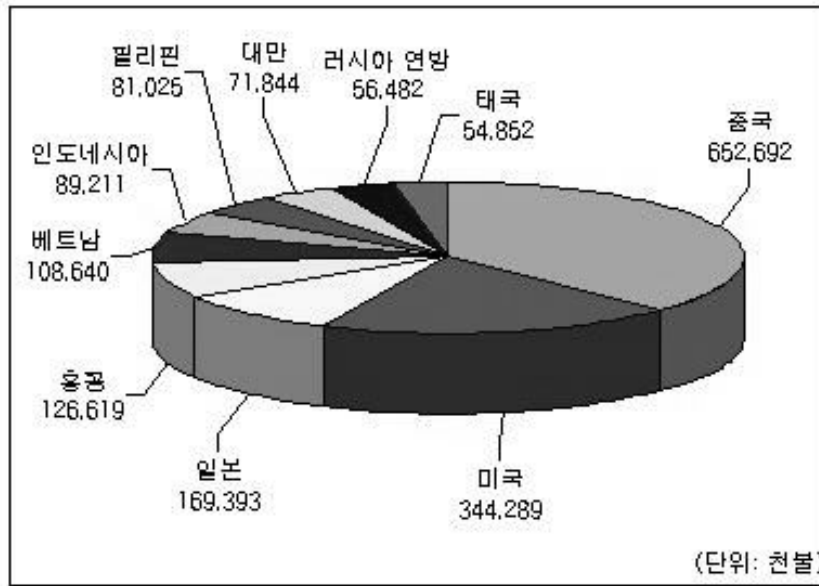
자료: 무역협회

<표> 서울의 품목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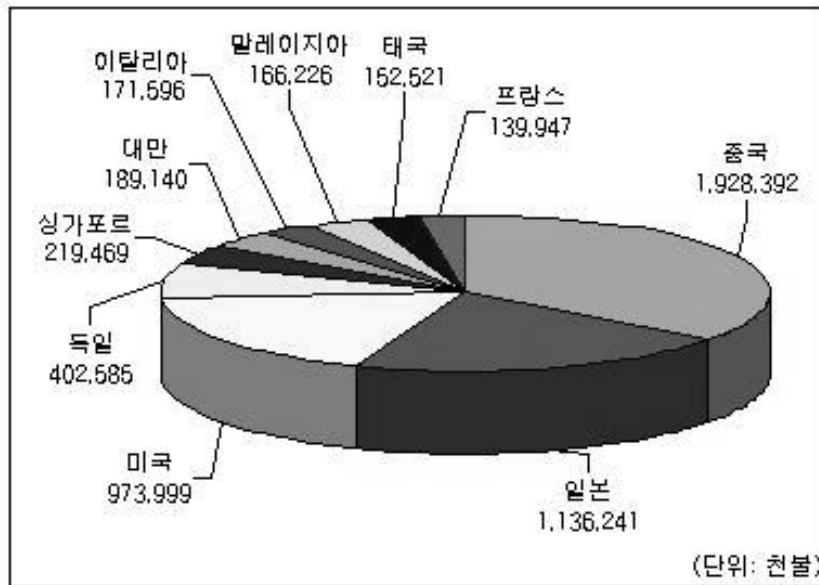
(단위: 천불, %)

순위	품목명	2008년 6월		2007년 6월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1	반도체	712,157	91.3	372,177	10.2
2	컴퓨터	478,265	21.2	394,706	-6.7
3	LPG	252,523	13,997,870.0	2	-
4	자동차	249,198	9.9	226,841	0.6
5	의류	190,808	3.7	183,931	-6.7
6	철강판	181,211	63.2	111,066	77.7
7	무선통신기기	165,639	37.5	120,479	-5
8	선재봉강및철근	141,552	170.1	52,409	18.1
9	농약및의약품	133,661	26.5	105,681	56.9
10	석유제품	132,666	7.9	122,980	15.6
	합계	7,145,776	23.8	5,774,073	15.8

자료: 무역협회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출



<그림> 서울의 국가별 수입